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이곳의 작은 땅, 가나안을 통해서도 믿음의 힘을 얻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속의 가나안을 생각나게 하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생동감 있게 해줍니다. 베들레헴, 골고다, 부활, 팔복산, 야곱의 우물, 갈릴리 바다, 그리고 아버지의 샘 - 이 모두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 온 세상의 구원자요 구속주이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 고요한 장소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 삶을 주께로 정렬하고 감화감동 받으며 변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9개국에서 불러내셔서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하셨습니다. 주님과 그리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기쁨은 우리를 전 세계의 많은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연결시켜줍니다.

우리는 교단, 국가 및 문화적 경계를 넘어 화해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에 신실히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는 젊은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이 부르심으로 우리 자매회의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사명을 끊임없이 사로잡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은
지금처럼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다가오시는 왕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 기독교마리아자매회
Heidelberger Landstraße 107, 64297 Darmstadt • Germany
reception@kanaan.org • www.kanaan.org

폐허로부터의 새 **생명**

독일, 다름슈타트
기독교마리아자매회

1944년 9월 11일 자정 무렵, 우리 도시는 폭격을 맞아 잿더미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비로 우리를 불러내시며 "너는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일어난 성령부흥을 통해 1947년 다름슈타트에 기독교 마리아자매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까지 주님을 따랐고, 그녀가 남긴 유언은 "주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요 2:5)라는 한 마디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본을 따르는 것이 저희 공동체 삶입니다.

잔해 더미와
불에 타버린
군사 막사에



서 모아온 부서진 벽돌로 초창기 자매들은 예배당과 모원 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실 한 처소를 짓는 일은 제 2차 세계 대전 때 일어났던 일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고통들과 마침내 이루신 승리의 부활을 향해 주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 드리는 일은 당연하였습니다. 당시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셨던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자매회의 두 설립자

마더 바실레아

(클라라 슐링크 박사) 1904~2001

“나는 항상 매우 기쁘다!”고 열네살 소녀 클라라는 일기에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던 소위 헛된 시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적어 나갔습니다. 단순한 복음을 믿을 수 없어 비판적인 질문이 너무 많았던 그녀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께서 친히 나타나 주셨을 때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녀는 답을 얻었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긍정이나 아니면 세상 부정이나에서 어떤 길로 가야 했을까요? 그녀에게겐 두 가지 다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생애 마지막까지 굳게 붙잡았던 열쇠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사랑’뿐이었습니다.

1935년 클라라 슐링크(Klara Schlink)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에리카 마다우스(Erika Madaus)와 함께 다름슈타트로 이사했습니다. 어둡고 시련으로 가득한 12년이 뒤따랐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었던 그 길은 겉으로는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럼에도 내면에서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시대적 위험으로 둘러싸인 채 그녀는 이스라엘의 영속적인 중요성에 대해 담대히 드러나게 발언했으며, 게슈타포 감시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함께 기독교여성청년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마더 마티리아

(에리카 마다우스) 1904~1999

누군가에게는 끝마침이 되는 *Konfirmation은 에리카에게 있어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죄사함이 주는 행복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했기에 예수님을 위해 살 것을 확고히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함부르크 상인의 딸로서 생각할 때 그녀의 생은 낮은 위험 부담과 함께 잘 짜여진 삶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녀에게 임했을 때 그녀는 안정적인 사회복지사로서의 공직을 포기하고 남은 생애를 어찌보면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을 맡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 Konfirmation: 13~14 살 청소년을 위한 유럽교회 전통적 입교예식,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확인받게 된다.

이 길을 가면서 마더 마티리아는 얼마나 자주 크게 또는 작게 말로 또는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단어를 되뇌었을까요! 수많은 불가능 앞에서도 그녀는 마더 바실레아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해 함께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내적 심령 안에 존재하는 장애물들과 기도 방해되는 것들을 없애는 일이, 외적으로 보이는 “산”을 믿음으로 옮기는 일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그녀 자신의 강한 성격이 도움이 되었으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마리아자매들이나 가나안프란체스코형제들(1967년부터), 또는 많은 방문객들 중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는 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설립자 두 분이 지닌 서로 완전히 다른 성격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두 사람을 고난과 믿음의 길 위에서 굳게 하나로 연합하게 했고 여러가지 혹독한 시련들을 견디어 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개척자로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앞서 걸으셨던 저희의 두 어머니는, 전쟁 후의 가난 속에서도 교회나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께서 지시하신 길을 담대히 걸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 길에서 우리를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굳게 붙잡아 주셨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